

홀트소식

WINTER 2022 VOL.203





겨울 이야기

개발도상국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가정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앞장서 온 해외아동 지원사업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11년 5월, 캄보디아 해외사업장(홀트드림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몽골, 탄자니아, 네팔 등 4개 국가에서 총 5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p 계속)



Contents

- 04 따뜻한 인사와 감동을 전합니다, 클래식을 통해
- 06 아이들은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 08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응원하는 따뜻한 동행
- 10 미혼한부모 영·유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 12 미혼한부모에 대한 생각을 뒤집으면 놀라운 기회가 생깁니다!
- 15 해외 아동들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기 위해
- 17 마음과 마음이 모인 'FILL YOUR DREAM' 찬양 콘서트
- 20 로타바이러스로부터 입양대기아동들을 지켜주세요, 그 후 이야기
- 22 평생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 25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나눔 가족
- 28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 30 함께해서 더 뜻깊은 나눔, 나눔기업 두 곳을 소개합니다
- 32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설태호 이사장(주북상사 대표) |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김경희 이사(前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린다백 이사(홀트아동복지회 이사) | 정익중 이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스티브 모리슨 이사(한국입양홍보회 이사) | 장재훈 감사(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 오윤숙 감사(정원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본부 02) 331-7000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광주지부 062)227-8877

산하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1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홀트학교 031)915-2913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부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251-8014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053)627-8875
 홀트광주심리상담센터 062)363-8878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032)424-5839

홀트서울심리상담센터 02)331-7192
 전주영아원 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홀트대구어린이집 053)746-7504
 하남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침들 042)585-3004
 고운들 031)216-9004
 아름들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마포클로버 02)322-3325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국제개발협력

홀트드림센터 (캄보디아, 탄자니아, 몽골, 네팔) 02)331-7086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 203호 · 기간 발행일 | 2022년 1월 28일 발행인 | 설태호 편집인 | 이수연
 발행처 | 경영기획본부 전략기획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후원문의 | 02-331-7073~6 ARS후원 | 060-700-1006
 홈페이지 | www.holt.or.kr 디자인 | 일투디투
 좋은 사연 · 좋은 제언 | plan@holt.or.kr

따뜻한 인사와 감동을 전합니다, 클래식을 통해

유튜브 채널 '비둘기 성악가' 수아네 가족



정수아 /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벤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정조(아빠)
조성숙(엄마)
세상에 나온 지 9일째에 만나 가슴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님

“생후 9일째에 만나 19년 동안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공연을 선물하고 싶어요!”

세상에 나온 지 일주일 조금 넘었을 때 입양부모님을 만나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정수아 양.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건 아니지만, 수아는 엄마, 아빠가 소중하게 키운 딸이야’라는 말씀을 듣고 자랐다고 하세요. 자연스럽게 ‘난 진짜 소중한 엄마, 아빠의 딸이구나’ 생각하며 안정감이 컸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나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수아 양이 부모님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고 하여 홀트아동복지회가 동행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가장 사적인 위로

유튜브 채널 '비둘기 성악가'는 바리톤 정경 성악가가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일대일 대면 콘서트를 여는 채널입니다. 19세기 우편 배달부 역할을 토티 해냈던 비둘기처럼 클래식을 통해 가족, 친구,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안부를 전해주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 수아 양은 부모님을 위해 비둘기 성악가와 함께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Dicitencello vuie 그대에게 내 말 전해주오

입양가족 인식개선 강연회에 초청받은 것으로 알고 홀트아동복지회를 찾은 입양부모님.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가족사진으로 제작된 수아 양의 영상 편지와 함께 입양부모님을 위한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때 기억나? 내가 초등학교 때, ‘내 엄마는 어딴어?’라고 물어봤잖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인데 혼자 이런저런 고민했을 엄마를 생각하니까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나에게 엄마는 평생 ‘조성숙’ 한 사람뿐이야. 그리고 아빠, 계속 ‘수아 아빠’로 함께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요!”

진심을 가득 담은 영상 편지에 입양부모님은 무척이나 놀랐지만, 얼굴에서 미소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커튼 뒤에서 수아 양과 함께 비둘기 색상의 연미복을 입고 나타난 정경 성악가의 우렁찬 세레나데! 입양부모님을 향한 수아 양의 사랑이 노래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감동적인 모습에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넋 놓고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언제나 그녀를 생각한다고, 그녀는 나의 삶 전부라고, 그녀를 많이 사랑해요~”



자랑스러운 내 딸, 수아

엄마 조성숙 씨는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는 잘할 수 있을지 부담이 컸지만, 막상 같이 지내다 보니 걱정은 사라지고 행복에 취해 살았다고 하세요. 수아 양이 준비한 영상 편지가 더 놀라운 이유가 있었다고.

“생모는 어디 계시느냐고 얘기했던 걸 수아가 기억 못 할 줄 알았는데 그걸 기억하고, 그때 엄마한테 미안했다는 말을 지금 처음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라 저도 대답을 잘 하지 못했는데, 수아가 미안해질 일이 아니죠. 수아가 입양에 대해 항상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대견스러워요.”

결혼하면 아이 한 명은 꼭 입양하자고 약속했다던 정정조·조성숙 부부. 첫째는 낳고 둘째를 입양해야겠다는 계획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결혼 8년 만에 수아 양을 만났습니다. 이후 부부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쌍둥이 자매(정하늘·정나라)까지 생기며 다섯 가족이 완성되었죠.

“입양과 출산 모두 똑같이 소중한 우리 자식이에요. 수아는 우리 부부가 그토록 기다린 아이였기 때문에 어딜 가도 늘 제 넋네임은 ‘수아 아빠’로 통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부모님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난다는 수아 양과 어디 가서든 아이들 얘기를 하면 가슴이 꽉 차도록 뿌듯하다는 엄마 조성숙 씨.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는 모녀를 보며 정정조 씨는 예비입양부모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Dicitencello a sta cumpagna vosta (당신의 친구인 그녀에게 내 말 전해주오)

“입양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직접 만나보면 모든 염려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입양하고 나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꼭 좋은 선택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입양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홀트아동복지회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성악가 정경

- 2016년 뉴욕 카네기홀 독창회 전석 매진
- EBS 라디오 '클래식 클래식' 진행
- 오페라마 예술경영 연구소 소장
- 워너뮤직 코리아 상임이사

* 감동의 현장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아이들은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동권리 그림공모전 '홀트, 세움'



UN이 제정한 세계 어린이날(11월 20일)을 맞아 작년에 이어 아동권리그림공모전 '홀트, 세움(아동의 목소리로 세상을 움직이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 너 때문이야 - 코로나가 빼앗은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실시되었으며, 한 달간 작품을 접수하여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등학생(만 7세~12세)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서 작품을 응모하였으며 총 257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상작은 홀트아동복지회 내부 임직원 심사, 전문가 심사(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과 고흥규 교수, 안양예술고등학교 미술부장 김광윤 교사)를 거쳐 1,000여 명의 시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 46선의 작품이 수상작(대상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10, 입상 30)으로 선정되었으며, 최다 득표자 3인에게는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 최우수상(홀트아동복지회장상,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정은비 (연일초등학교 6학년)

코로나가 빼앗은 우리의 추억

- **작품설명** : 운동회, 수학여행 등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활동들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 **전문가 심사평** : 코로나 상황으로 멈추어진 아이들의 일상을 정돈된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되찾고 싶은 소중한 일상을 스냅 사진 형식으로 구성한 표현이 우수합니다.



최우수상 (홀트아동복지회장상)
장하준 (천안아름초등학교 1학년)

친구와 함께 떡볶이 먹고 싶어요

- **작품설명** : 학교 앞 문방구에 가면 맛있는 떡볶이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서 그냥 지나쳐 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가 심사평** : 1학년 아이의 눈높이와 생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의 바람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담았으며, 그 표현이 발랄하고 재미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눌 수 없는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을 독특한 구조와 재치 있는 묘사로 표현하였습니다.



최우수상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상)
박연수 (온양풍기초등학교 6학년)

마스크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요!

- **작품설명** : 마음껏 친구들과 놀 수도 없고 여행도 가지 못해서 우리 모두 함께 방역수칙을 지켜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 **전문가 심사평** : 아동의 권리와 코로나라는 주제를 통합하여 그림으로 잘 풀어내었고 그 표현의 방법과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로 이슈화된 주제들을 다양한 재료 기법을 통해 한 화면에 우수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온라인 심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일상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움을 그림으로 잘 표현하였다", "코로나19가 얼른 종식돼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보고 싶다." 등 소감을 밝혔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글 아동복지팀 지미경

* 더 많은 수상작품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응원하는 따뜻한 동행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명예멘토 위촉



강한 봅슬레이 선수와 김영미 산악인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의 명예 멘토로 위촉되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분을 위촉하고 있는데요. 최정원 뮤지컬배우, 박요한 목사, 여경옥 셰프에 이어 강한 선수와 김영미 산악인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함께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어 IBSF 월드컵에 출전하였으며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준비 중인 강한 선수는 스포츠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시설청소년 동생들을 위해 진로 멘토링을 해주셨는데요. 운동선수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부터 국가대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하고, 개별 입시전형을 살펴보며 아이들에게 맞춤 진로상담도 이어나갔습니다.

진로, 입시 고민부터 보호종료 이후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강한 선수는 “성장하며 같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멘토이자 든든한 형이 되어주고 싶다”며 보호종료아동을 응원해주었습니다. 멘토링에 참여한 멘티들은 “나도 성공해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강한 선수처럼 좋은 선배가 되고 싶다”, “많은 경험을 한 선배를 만나 진정성 있는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동기 부여된 희망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내 최연소 세계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고, 시베리아 바이칼호 724km를 단독으로 종단하며 2020년 체육훈장 거상장을 수상하기도 한 김영미 산악인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클라이밍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파랑새 아이들은 평소 접하지 못했던 클라이밍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영미 산악인은 세계 여러 산을 등반하며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하며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열정과 끈기의 자세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은 “정말 재미있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영미 산악인 또한 “파랑새 멘티 아동들과 함께 해 더욱 즐거웠고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 줘서 고마웠다”며 “앞으로 홀트아동복지회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시설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해주고, 파랑새 친구들의 희망찬 날갯짓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아동복지팀 박소현, 지미경



1 강한 선수 위촉식
2 김영미 산악인 멘토링 활동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시설 퇴소를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기수별로 총 30명의 보호종료아동에게 시설 퇴소 전, 후로 2년 동안 경제, 진로, 정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보호종료아동 120명의 안정된 자립을 응원하였습니다.

미혼한부모 영·유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물품지원사업 '365베이비케어키트'



미혼한부모 대다수는 자녀와 단둘이 거주하며 양육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기 자녀 양육 시 부모 역할 수행에 따른 어려움과 자녀 양육으로 인한 자립 활동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고 있습니다. 많은 미혼한부모들은 양육 물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출산하게 되는데요. 초기 필수 양육 물품에는 기저귀를 비롯해 분유, 이유식 등 자녀의 건강과 직결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양육 물품의 부족은 결국 자녀의 영양 불균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홀트아동복지회는 미혼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동의 생명을 365일 건강하게 지키다'는 취지 아래 2013년부터 양육필수물품을 키트로 구성하여 양육물품지원사업 '365베이비케어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KB손해보험의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위생용품을 추가하였고, 친환경·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KB손해보험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미혼한부모 63가정에 분유/이유식, 기저귀, 물티슈, 손 세정제, 의류 등으로 키트를 구성해 월 1회씩, 6개월 동안 지원했는데요.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365베이비케어키트 지원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365 베이비케어키트' 만족도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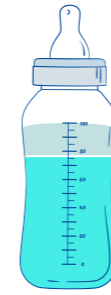


◆ 조사기간 : 2021. 10~11
◆ 응답인원 : 55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있어 '365베이비케어키트'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응답자 중 100%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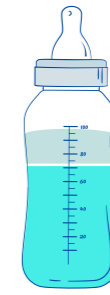
■ 아주 그렇다 76%
■ 그렇다 24%



대상자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까?

응답자 중 98%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아주 그렇다 71%
■ 그렇다 27%



'365베이비케어키트'가 지속되길 희망하십니까?

응답자 중 98%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응답

■ 아주 그렇다 89%
■ 그렇다 9%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받아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리적으로 바로 이어지다 보니... 이런 물품지원사업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양육에 꼭 필요한 것들로 지원받은 6개월, 잊지 못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손 내밀어 도움 주셔서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을 가지고 아이를 웃이 양육할 수 있었어요. 지원사업에 힘써주신 담당자분들과 후원해주신 후원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65베이비케어키트'는 물품구성에 따라 A/B/C로 키트를 구분하여 미혼한부모들이 본인이 원하는 키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6개월)함으로써 미혼한부모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혼한부모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원지현

* KB 손해보험



2014년부터 미혼한부모가정 양육물품 지원사업 '365베이비케어키트', 2017년부터 미혼한부모 자녀의 학습 발달을 돕기 위한 학습물품 지원사업 '365키즈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KB희망나눔기금으로 보호종료청소년 기술교육지원 '런런챌린지' 지원을 통해 시설 퇴소 후 홀로 서야 하는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혼한부모에 대한 생각을 뒤집으면 놀라운 기회가 생깁니다!

미혼한부모 지원 캠페인 'MOM IS WOW'

MOM is WOW

'MOM IS WOW' 캠페인은 우리 사회가 미혼한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미혼한부모들에게 놀라운 자립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후원 캠페인입니다.

“여러분은 미혼한부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애를 키워?

남편 없이 혼자 어떻게 아이를 키우지? 불쌍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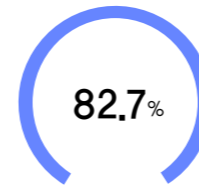
혼자서 애를 키우게 된 이유는 모두 엄마에게 있을 거야

아빠를 볼 수 없는 아이가 안쓰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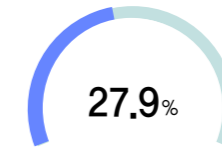
“미혼한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조사



◀미혼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들은 적이 있다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경험한 비율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받은 비율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들은 적이 있다는 비율이 82.7%였으며,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경험한 비율은 27.9%,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받은 비율은 11.6%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 사회는 미혼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미혼한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연민의 시선과 부정적인 편견의 시선, 두 시선 모두 미혼한부모의 삶을 오히려 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미혼한부모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를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낸 엄마와 아이의 삶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죠!

미혼한부모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옆집에 사는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봐주세요!”

우리의 시선을 뒤집으면 엄마의 삶에 놀라운 기회가 생깁니다!

'MOM'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WOW'가 되듯, 미혼한부모에 대한 시선을 뒤집으면 엄마의 삶에 자립을 통한 놀라운 기회가 생깁니다. 미혼한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엄마들이 스스로 가정을 지키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와 자신의 당당한 자립을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미혼한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MOM IS WOW 캠페인을 통해 미혼한부모에게 놀라운 기회를 선물해주는 분들에게는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미혼한부모가 직접 만든 수제품이 담긴 WOW키트를 리워드로 드립니다. HOLT 공유공방 '가치만들'을 통해 자립 교육도 받고 역량을 개발하며 자신의 공방을 창업한 미혼한부모가 천연 수제 비누를 하나하나 소중히 만들어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미혼한부모에 대한 시선을 바꾸고 미혼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MOM IS WOW 캠페인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2월 배우이자 보라도리의 대표인 남보라님께서 무하스 핸드 세니겔 제품을 기부해주었습니다. 무하스 핸드 세니겔 제품은 WOW키트에 포함되어 캠페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 전달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WOW키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어서어서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MOM
is
WOW

WowKit

MOM IS WOW 캠페인은 앞으로 꼭 지속할 예정인 만큼,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참! 캠페인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에게 전달되는 WOW키트는 한정 수량인 만큼 언제 소진될지 모르니 더 빠르게 참여해주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은 모두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한 양육 지원과 미혼한부모 자립지원비로 지원됩니다. 모든 미혼한부모들이 WOW! 놀라운 기회를 만나 당당히 자립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글 나눔기획팀 홍은지

해외 아동들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기 위해

해외아동 지원사업 10주년



개발도상국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가정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앞장서 온 해외아동 지원사업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캄보디아 해외사업장(홀트드림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몽골, 탄자니아, 네팔 등 4개 국가에서 총 5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외사업 시작 당시 캄보디아 아동 교육을 위한 방과 후 교실 운영을 주 사업으로 진행했으나, 지금은 사업장마다 유아~대학생 교육사업, 장학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방임 아동 보호사업, 가정 자립사업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홀트 해외사업장을 통해 83,958명의 아동이 교육·건강·정서·가정지립 지원을 받았는데요. 공립초등학교 증축 사업을 통해 지역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해왔습니다.

연도	국가	도시	인원
2017년	네팔	툴라사데비	초등학교(30명)
2019년	캄보디아	투모다	초등학교(320명)
2020년	네팔	카루메	초등학교(1,225명)

“홀트에서 받은 사랑, 다시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홀트에서 받은 사랑,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캄보디아에 사는 콘 스레이 이(Khorn Srey E)는 하루 4천 원 미만의 돈으로 4명의 가족과 살아가기 어려워지자, 오빠와 함께 노동하며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원을 통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홀트드림센터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프놈펜 왕립대학교(RUPP)에 합격하여 대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홀트드림센터의 행정 직원으로 근무하며 홀트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아이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눈에 띄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캄보디아의 학교 중퇴율은 평균 4.1%지만 홀트사업장에서 지원받은 아동들은 모두 상급 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탄자니아, 몽골 사업장에서도 아동들의 기초학습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아동결핍지수 감소, 가족관계지수 증가 등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0년, 캄보디아 사업장에서는 센터 졸업생 중 첫 대학 진학자도 나왔는데요. 대학진학률이 15%에 그치는 캄보디아에서 슬럼가 아동이 대학에 진학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에도 지역 내 10명의 학생이 홀트의 지원으로 대학에 진학했죠.

지난 10년 동안 해외아동을 위해 뜻을 모아준 후원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홀트아동복지회는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아동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모인 'FILL YOUR DREAM' 찬양 콘서트

크리스천 온라인 아웃리치

11월에 진행한 'FILL YOUR DREAM' 캠페인은 제목 그대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해외 아이들을 응원하는 온라인 아웃리치 캠페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 나가 봉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나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에코백 챌린지 ▶



취지에 공감한 많은 후원자분이 탄자니아, 몽골,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캠페인에 참여해주셨는데요. 일시후원 또는 해외아동결연 정기후원 신청 후 받게 되는 국가별 패키지에 들어있는 에코백을 꾸며 홀트아동 복지회로 보내주었습니다. 해외아동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후원자분들이 직접 꾸민 다양각색의 에코백은 홀트 해외사업장인 홀트 드림센터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지난 11월 20일, 'FILL YOUR DREAM' 캠페인의 하이라이트인 찬양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주영훈 홍보대사, 박요한 홍보대사, CCM그룹 '같이걸어가기(염평안, 조찬미, 임성규)'가 함께한 온·오프라인 찬양 콘서트에는 그동안 모일 수 없어 현장 참여를 염원했던 분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여 더욱더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기꺼이 시간을 내어 스페셜 MC를 맡은 주영훈 홍보대사의 유쾌하고 따뜻한 진행은 박요한 홍보대사와 CCM 그룹 '같이걸어가기'가 노래로 마음을 나누기에 가장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출연진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참여한 후원자들도 집중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번 찬양 콘서트가 온라인으로 홀트 유튜브 채널에 동시 생중계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아직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응원의 힘을 보태고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방법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 인원은 최소화하였지만, 온라인 동시 생중계를 통해 많은 분이 현장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임에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실시간으로 응원의 댓글을 남겼고, 출연진들과도 댓글을 통해 소통을 이뤄나갔습니다. 콘서트 말미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참여한 모든 사람이 마치 한자리에 모여 있는 듯, 한마음으로 콘서트에 집중하였습니다.

가장 어린 후원자였던 초등학교 후원자는 에코백을 꾸미면서 해외에 있는 또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잠시라도 가지게 되어 뜻깊었고, 콘서트 현장 참여를 통해 그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따뜻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 관객으로 참여했던 후원자들 역시 '오랫동안 현장의 뜨거움과 감동이 그리웠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콘서트에 관객으로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해외의 어려운 아이들이 힘을 얻고 꿈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한다'며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빛을 아직 보지 못하는 해외의 어려운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봉사과 나눔,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그 아이들도 빛을 보고 더욱 힘차게 걸어가 수 있습니다. 해외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글 나눔지원팀 송하영



국내·해외아동결연 '허브'

결연문의 : www.holt.or.kr/hub 사회공헌협력팀

로타바이러스로부터 입양대기아동들을 지켜주세요, 그 후 이야기

입양대기아동 의료지원 캠페인 후기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로타바이러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을 위협하는 로타바이러스는 전 세계 아이들의 95%가 만 5세 이전에 한 번 이상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구토,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증상과 함께 심각할 경우 탈수증세로 이어져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죠. 게다가 비누, 소독제에 대한 내성이 있어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는 예방이 어렵습니다. 손 세정제도 견디는 끈질긴 바이러스다 보니, 장난감과 가구 등 딱딱한 표면에 오래동안 남아있습니다. 병원, 놀이터, 어린이집 등 우리 아이들의 활동 범위가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로타바이러스와의 접점은 많아 집니다.

적절한 시기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력이 약해져 다른 바이러스에도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아동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아직 치료법이 없어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이 최선입니다. 면역 기능이 약한 미숙아나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또래보다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한데다, 입양대기아동들은 매월 건강체크, 발달치료 등 주기적인 외부 활동이 필수적인 터라 적절한 시기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지켜주는 소중한 백신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민(가명)이는 2020년, 2,27kg 저체중으로 태어나 홀트에 왔습니다. 출생 당시, 신생아 황달, 심방 중격 결손, 측면 뇌실 비대칭 확장 등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의료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하민이를 양육하는 위탁가정에서는 약하게 태어난 하민이가 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받으며 혹시라도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외출할 때마다 노심초사였습니다. 다행히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구입한 백신으로 하민이는 적절한 시기에 접종할 수 있었고, 덕분에 위탁어머니는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의 품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후원금은 입양대기아동들을 위한 로타바이러스 백신 구입 비용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원우 후원자 인터뷰



추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던 어느 날, 창덕궁 돌담길이 보이는 종로 한 카페에서 이원우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현대건설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근무기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무려 45년째 홀트와 인연을 맺으며 함께하고 있는 그에게 나눔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45년의 세월을 넘어 대를 이은 후원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합정동을 걷고 있었는데 홀트아동복지회 본사 외벽에 걸린 광고 현수막이 눈에 띄었어요. ‘한 계좌당 5천 원.’ 평소 남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터라 그 길로 바로 후원을 신청했죠.”

한달 용돈 2만 원이던 학생의 신분으로 5천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후원을 평생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었다는 이원우 후원자. 그 마음 그대로 중요하고 특별한 때마다 잊지 않고 홀트를 찾아주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그가 어엿한 사회인이 되고, 결혼하여 소중한 가족을 이루며 기념일이 생길 때마다 나눔을 실천했는데요. 첫 직장 입사, 부부의 결혼기념일, 환갑, 승진 등 축하할 일이 생기면 바로 홀트를 떠올렸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을 지금도 ‘꼬마’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한 애정이 있는 그는 아들이 태어난 날은 물론, 건강하게 다녀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대와 제대 기념 후원금도 전달했습니다. 그의 후원활동을 곁에서 보고자란 영향인지 아들도 20살이 되던 해부터 홀트에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들도 후원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사회와 이웃을 보는 눈을 더 크게 키워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나중에는 아들의 자녀까지, 세대를 뛰어넘어 후원이 계속 이어지면 더욱 좋구요. 허하”

굳은 믿음으로

후원을 시작한 이후 홀트아동복지회의 설립자 해리 홀트·버다 홀트 부부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원우 후원자. 전쟁 직후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쏟아부은 홀트 부부의 나눔 정신을 보며 홀트에 대한 믿음이 후원을 계속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원우 후원자는 60세를 넘겨 현대건설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덩으로 일하는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더 나누고 싶었어요.”

후원금 1억 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입양대기 아동과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쓰였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때는 후원자 대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행사 중 홀트 장애학생 오케스트라 '에그리나'의 연주에 감동받아 휴대폰으로 다각도로 사진을 찍던 후원자 부부의 모습은 홀트 직원들의 눈에 아직도 선하다고.

현재 현대건설 등기이사인 그는 2년 뒤쯤 임기를 마치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예전에 장애인 거주시설 홀트일산복지타운에 방문했을 때 '언젠가 이 아이들을 도와줄 기회가 오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은퇴 후 봉사활동을 통해 실현하고 싶다는 감쪽 발표했습니다.



▲ 홀트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원우 후원자 가족

나눔의 마음을 크게 가질수록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마음의 충만함도 얻게 되었다는 이원우 후원자. 인생의 절반 이상을 홀트와 함께하며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이원우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글 전략기획팀 우은영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나눔 가족

중소상공인 나눔캠페인 '홀트패밀리샵#'

홀트아동복지회는 2014년부터 중소기업인 정기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뜻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캠페인으로, 전국 각지에서 나눔의 손길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반 매장, 자영업, 중소기업, 프랜차이즈업, 학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학교 학급, 어린이집 등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풍성한 사랑과 행복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홀트와 함께해주신 후원자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나눔은 우리 모두 잘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_우리웃 윤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져 화려하고도 단아한 자태를 풍기는 우리나라 전통 한복은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새로운 세대에겐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한복 디자이너 김유미 후원자는 한복점 '우리웃 윤'의 대표이자 의미 있는 한복 나눔으로 홀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는 아동들이 더욱 사랑받고 소중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고자 입양아동들에게 맞춤형 한복을 선물해주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홀트 대전후원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녀에게 나눔이란 무엇인지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웃
윤



홀트와 인연을 맺은 것은 3년 전. 존경하는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의 소개로 홀트 대전후원회에 입회하였으나 국내·외 저소득 아동에 대한 나눔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과 함께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고 우연히 한복을 배우게 된 그녀는 한복점을 열고 매출이 생기자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사회에 나눔으로 보답하고 싶었어요. 비록 작지만, 이 나눔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이 받은 사랑을 전달한다면 반항을 불러일으키겠죠. 그 나눔이 또다시 저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고요.”

정이 사라지고 이웃을 돌아보기 어려운 현대사회에서 김유미 후원자는 우리나라의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다음 세대인 아동·청소년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고, 한복의 길을 걸어온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홀트와의 동행뿐만 아니라 빈곤국 아동을 위한 해외아동 결연후원 및 지역 내 저소득 청소년들을 꾸준히 돕고 있습니다.



홀트 정기후원에 이어 홀트패밀리샵#을 시작한 김유미 후원자는 입양대기아동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한복을 직접 제작하여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한복 선물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 부모와 가정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한복 입은 돌잔치 사진을 자녀에게 보여주며 ‘엄마 아빠가 널 이렇게 사랑했어’라고 설명해주잖아요. 입양대기아동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입양부모님을 만나기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선물이 되었으면 해요.”

김유미 후원자는 오늘도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틈틈이 홀트 입양대기아동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바람처럼 따뜻한 나눔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글 충청지부 조한별



동네점빵은 사랑을 행동으로! _뉴(new)동네점빵

무인할인판매점 '뉴(new)동네점빵'은 어릴 적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추억의 점빵(동네 가게)의 감성을 가져와 ‘그때 그 시절의 레트로 감성과 현재 시점이 만난다’는 의미로, 아이스크림, 과자, 장난감, 밀키트 등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경북에 위치한 뉴(new)동네점빵의 8개 지점이 홀트패밀리샵#에 함께하였는데요. 지점별 후원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후원하고 싶은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동네점빵 오픈을 준비하면서 홀트패밀리샵#을 알게 되었어요. 홀트의 아이들과 동네점빵이 함께 인연을 맺게 되어서 너무 뜻깊습니다.

울하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참 아팠어요. 홀트패밀리샵#을 통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마음에 너무 기뻐요, 이런 좋은 나눔들이 확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IG점

예전에는 봉사활동을 줄곧 해왔지만, 가게운영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봉사를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컸어요. 이렇게 홀트와 인연이 닿아 조금이나마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누구나 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홀트패밀리샵#이 활성화 되어서 많은 분이 함께 홀트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현점

곳곳에서 동네점빵 지점들이 오픈하는 걸 지켜보면서 문득 아이스크림, 과자마저 사 먹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동네점빵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저마다 작은 것에 행복해지는 순간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그런 행복조차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점빵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구매한 것들이 쌓여 홀트의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동네점빵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많은 동네점빵들이 함께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가람점

나눔에 동참해준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대구지부 김은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홀트 서포터즈 인터뷰

후원자님의 도움이 미혼한부모와 아이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어떤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인지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미혼한부모가 정과 만나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할지 판단하는 전문 사회복지사도 필요하고,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후원자님들의 궁금증을 친절히 안내할 수 있는 상담원도 필요합니다. 그 중, 추운 날씨에도 늘 최일선에서 후원자님을 만나는 서포터즈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함께하는 후원자님들 덕분에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남기열 서포터즈는 어린 시절부터 후원을 해왔는데요. 세상을 바꾸려면 혼자서 후원하는 것보다 한 명, 두 명이라도 같이 나눔에 동참하도록 제안하는 일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미혼한부모가정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메시지를 시민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어느 날 본인이 한부모가정이라며, 아이가 장애 때문에 몸이 많이 아프고 혼자서 아등바등 애쓰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보탬이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계시니 어머니도 꼭 힘내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나쁜 생각 하지 않고 자신도 열심히 살겠다며 어려운 상황에 후원까지 신청하셨는데, 아이와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제가 오히려 그 어머니께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포터즈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조차 바빠서 급히 지나가는 분들도 많지만, 추운 날 좋은 일 때문에 애쓰다며 격려해주는 분들도 많다고. 남기열 서포터즈는 인터뷰하는 날도 자양강장



제를 8개나 받았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오늘보다 내일,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며 매일 보람차게 활동합니다.

서포터즈를 현장에서 만나면 생기는 좋은 일들

- 첫 번째, 후원자님의 궁금증을 서포터즈가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 두 번째, 모바일 기기, pc를 다루기 어렵거나 신청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분들도 간편하게 후원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세 번째, 오늘부터 나눔 시작! 언젠가 해야지 마음먹고 있던 후원을 바로 시작하는 계기가 생겨요!

현장에서 만나는 나눔의 가치, 기쁘고 감사해요!

최원경 서포터즈는 전에 다니던 학교 옆에 홀트일산복지타운이 있어 홀트가 아주 친숙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돕는 일은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지나치거나 후원생 생소한 분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바깥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춥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후원자님들에게 드리는 홍보물이 날아가기도 하고, 눈이나 비가 내릴 때도 있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곳은 날씨에 왜 굳이 캠페인을 진행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날 오히려 마음을 울리는 분들을 만날 때가 생긴다고 합니다.

“목포에서 한 어머니와 중학생 자녀를 만난 적 있어요. 그날도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미혼한부모가족을 돕자는 이야기를 하니 자녀분이 정말 후원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현실적으로 용돈을 아껴야 후원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얘기하자 그때부터 학생은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장장 40분을 길에서 서서 고민하는데, 어머니께서 그 곁을 묵묵히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보통 어머니께서 자녀이름으로 후원하실 땐, ‘후원금은 엄마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분이 나눔을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그걸 통해 기쁨도 온전히 아이의 몫으로 남겨놓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분을 만날 때 정말 나눔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신 분을 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해요.”



민트색 조끼를 입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서포터즈를 만나면 ‘저도 세상이 조금은 더 좋아지길 바라는 한 사람이에요’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기대합니다.

글 나눔기획팀 이현주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지만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물어볼만한 곳이 없었다면? 민트 유니폼을 입은 서포터즈를 만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홀트 서포터즈를 만나면 꼭 확인해주세요!

- 첫 번째, 민트색 조끼 유니폼인가요?
- 두 번째, 이름표를 걸고 있나요?
- 세 번째, 홀트 소식지를 갖고 있나요?
- * 서포터즈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홀트 대표번호(02-331-7000)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함께해서 더 뜻깊은 나눔, 나눔기업 두 곳을 소개합니다

나눔기업 쿠시먼&웨이크필드 코리아 ·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꽃은 임직원 참여라고 하죠. 오랜 기간 임직원들이 열렬한 관심을 가지며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 캠페인까지 진행하는 등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함께해서 더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쳐온 두 기업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쿠시먼&웨이크필드 코리아, 임직원 봉사활동과 기부 참여활동

쿠시먼&웨이크필드는 세계적인 부동산 서비스 회사로, 한국지사 임직원들이 오랜 기간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성행하기 전까지 임직원들은 매년 한데 모여 봉사활동을 하며 직원들 간의 화합을 다지고 나눔의 의미를 공유했는데요. 2018년에는 바자회 봉사활동을, 2019년에는 입양대기아동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쿠시먼&웨이크필드 코리아와 임직원들은 전국 저소득가정 아이들(꿈동이)이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4년째 특기활동, 학습활동비 등의 교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와 임직원들이 함께 마련한 기금으로 지원하다 보니 그 의미가 더욱 뜻깊습니다. 직원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꿈동이 아이들은 미래의 방송국PD, 건축가, 외교관, 태권도 선수, 경찰, 패션디자이너, 사육사 등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심리상담센터 개소를 위한 다양한 기부 행사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2017년부터 꾸준히 임직원 참여 기부행사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아기 신발 만들기', 여름에는 '나눔 오리 경주대회', 가을에는 '런 투 기브(Run To Give)' 그리고 겨울에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위시 트리(Wish Tree)' 행사까지. 사계절 동안 마음을 담아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임직원들 참여 행사로 모은 기부금은 위기 가정 아이들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요. 2019년 다양한 행사로 모아준 기금은 서울심리상담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사용되



었습니다. 2019년부터 준비하여 작년 8월에 개소한 서울심리상담센터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정서지원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이어져 온 긴 인연, 쿠시먼&웨이크필드 코리아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임직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색다른 나눔 활동을 준비하여 아이들을 향한 임직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

김기범 공인노무사, 신규 탑리더스 위원 위촉



미혼한부모가정에 대한 관심으로 후원을 결정한 김기범 공인노무사가 58번째 홀트아동복지회 탑리더스 신규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후원금은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과 미혼한부모의 자립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북 포항시, 아동복지 증진 협약 체결



12월 7일, 아동 권리옹호를 위해 포항시청(시장 이강덕)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개선을 위해 지원금 4백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례 발굴 및 지원, 학습 환경 지원 및 후원사업 연계,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사업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행복재테크,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12월 17일, 행복재테크에서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해 2천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행복재테크는 유튜브 '행크티비'를 통해 부동산, 재테크, 창업 등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강좌 수강생들이 함께 모여 만든 동호회로 '이번 후원을 통해 미혼한부모가정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래퍼 조광일, 학대피해아동 지원 후원금 전달



Mnet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10' 우승 래퍼 조광일이 도움이 필요한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2020년도 LG유플러스 광고 수익금 전액을 보호종료청소년과 위기가정아동을 위해 후원한 바 있으며, 이번 후원금은 학대피해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기구, 겨울침구 구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구지부

김해내삼교회 홀트가족사랑예배 실시



11월 6일, 김해시 주촌면에 위치한 김해내삼교회에서 홀트가족사랑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요한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통한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홀트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홀트사랑가족이 되어준 김해내삼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충청지부

제16회 입양의 날 행사



11월 27일, 제 16회 입양의 날을 맞아 대전시 주최, 홀트충청지부, 동방대전지부 공동 주관으로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대전, 충남·북 약 360여 명의 입양가족들이 즐겁게 참여하였으며 홀트 한사랑회 대전, 충남·북 박요한 회장이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광주지부

기아자동차 임직원과 함께하는 북커버 만들기 '나를 지켜주세요' 진행



광주 기아자동차 임직원들은 북커버를 만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위기가정아동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준 기아자동차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성인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아르페 아카데미'에서 출품한 작품명 '아빠와 함께'가 발달장애인 그림공모전 '그림으로 말해요(한국장애인 사랑협회 주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작품은 아빠와 자전거를 타고 즐거운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홀트강동복지관

홀트강동대학, '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 출품



홀트강동대학을 이용하는 성인발달장애인 이용자들이 강동구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 '나를 그리다, 무한함의 순간들'에 출품하였습니다. 홀트강동대학 12명의 학생이 두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단체작품을 포함한 총 11점의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전시된 자신의 작품을 보며 모두 자랑스러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구종합사회복지관

가족자원봉사단 '온기 가득! 사랑의 연탄나눔'



1997년부터 25년 동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가족자원봉사단이 연탄구입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2,020,000원을 후원하였습니다. 가족자원봉사단 전체기수 38명과 함께 '온기 가득!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도 진행하여 총 6명의 취약계층에게 연탄 200장씩 총 1,200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웰빙 김장김치 나누기

김장철을 맞이하여 해운대로타리클럽에서 후원한 100만 원으로 김장김치를 구입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어르신 70명에게 나눠드리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운대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수영종합사회복지관

제3회 주민축제 '홀트야 놀자'



주민축제를 맞이하여 수영구 주민을 위한 우리 동네 투어, 추억의 골목놀이, 출근길 응원이벤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고, 코로나19로 자주 만나지 못했던 주민과도 오랜만에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침들

가족 미술치료-우리 아이 마음 읽기



미혼한부모가족 22명을 대상으로 가족 미술치료 '우리 아이 마음 읽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으로 실시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한부모들은 자녀의 성향을 이해하고 감정을 관찰하며, 아이에게 맞는 바람직한 소통 방식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고운들

화담숲 나들이 프로그램

경기 광주에 위치한 화담숲에 방문하여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두고,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들

행복한 제주여행

11월 9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엄마와 아기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편안하고 쾌적한 숙소, 감귤 따기, 승마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함께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충분히 즐기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대구클로버

청도 가을 나들이

오랜만에 가까운 청도에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도 읍성을 한바퀴 돌며 바람도 쐬고, 청도 대표 특산물인 감말랭이를 재료로 감빵 만들기 체험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전클로버

가족여행 '토닥토닥'



1년 동안 자립을 위해 바쁘게 지낸 클로버 가족들과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으로 가능했던 오랜만의 가족여행이었습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야외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고 동물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온전히 서로 바라보며 사랑을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힐링 숲체험 프로그램'

국립춘천숲체원에서 11월 6일부터 21일까지 매주 주말(1박 2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친밀감을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총 200여 명의 참여자들이 가을 숲 나들이, 숲 놀이, 마음공연 등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망은
나눌수록 자랍니다

국내후원

홀트사업후원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전반적인 복지사업 지원

아동청소년후원

입양대기아동 양육, 보호종료아동·청소년 자립, 위기가정아동보호를 위한 통합지원

미혼한부모가족후원

자녀양육 및 교육, 주거 안정, 심리정서, 인식 개선, 자립역량강화 지원

장애인복지후원

보호, 의료, 심리상담, 특수교육, 직업재활, 스포츠재활, 자립 지원

해외후원

해외사업후원

극빈촌의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사업후원

결연후원

국내·해외아동결연 후원

도움이 필요한 국내 및 해외 아동이 후원자와 결연을 맺고 교육, 의료, 가정, 정서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결연아동의 성장을 돕는 후원

- 후원상담 · 문의 02-331-7073~6
- ARS후원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 한부모 공간복지사업 HOLT 공유공방 |



가치만들기

한부모들이 **함께** 학습하고 **같이** 성장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 1 베이킹, 가죽공예, 수공예 분야의 전문장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 2 원하는 시간만큼 예약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 3 자신있는 분야를 주제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클래스를 진행할 수 있어요
- 4 관심분야에서 활동중인 한부모 및 전문가를 만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 holtatelier.holt.or.kr

문의 한부모지원센터 02-331-7083

현대백화점그룹은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나눔기업입니다.

'더 가꿈'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교육 및 정서를 위한 1:1 대학생 학습 멘토링 지원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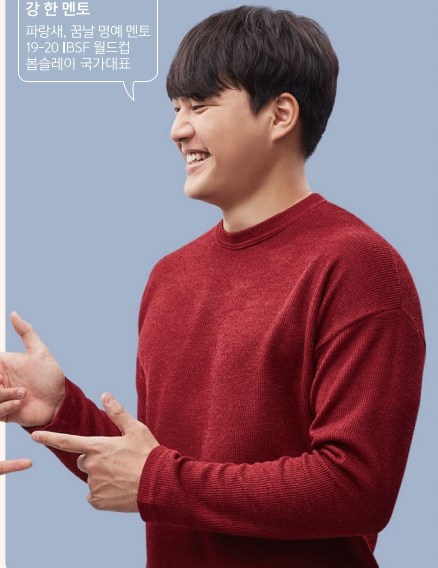
김수은 멘토
더 가꿈 6기 대학생 가꿈미
건국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 학생



'꿈날'은 만18세 보조종료 청소년들이 순조롭게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 진로설정 및 정서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한 멘토
파랑새, 꿈날 명예 멘토
19-20 IBSF 월드컵
복슬레이 국가대표



현대가 미래와 동행합니다

스스로 꿈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이 함께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미래세대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홀로서기를 배울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그룹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미래에게